

“지혜와 자비 바탕 인류행복 실현돼야”

종정예하 신년 하례법회서
‘불자로서 마음가짐’ 강조
대중사 법계 품서식도 봉행

조계종 진제 종정예하가 불기 2564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혜와 자비 실천을 강조했다. 진제 종정예하는 1월8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서 불자로서 새해를 맞는 마음가짐을 당부했다.

종정예하는 인간 내면의 평화와 ‘보다나은 세상’을 만드는 종교의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불교의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가 정치와 사회의 기본이념이 돼 생명존중과 인류의 행복이 실현돼야 한다”며 불자들에게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하고 화두를 쟁기고 의심하면 문득 ‘참나’를 깨닫게 된다”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또한 공심에 기반해 총무행정에 전력을 한 해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 뿐 아니라 재가불자들과 합심해 종단의 현안 불사를 차분히 이뤄나가겠다”며 “백만원씩 결집불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굳게 세우고 갈등과 대립으로부터 종단이 국민과 불자들에게 신뢰받고 사회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종도 스님들의 덕화를 본받아 청정한 수행가풍과 종단 위상을 반석처럼 세우는 데 매진할 것”이라며 “화평과 중도 사상을 바탕으로 화합과 공존의 사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 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신년하례법회에 이어 종단 최고 법계인 대중사 품서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진제 종정예하로부터 대중사 법계를 품서받은 스님은 모두 12명. 법인스님, 보광스님, 문인스님, 정우스님, 자광스님, 천진스님, 종성스님, 정우스님, 정광스님, 혜거스님, 선용스님, 동광스님이다.

▶관련기사 3편

진제 종정예하는 12명 스님들에게 대중사 법계증과 이를 상징하는 위장이 부착된 25조 가사를 내렸다. 종정예하는 법어를 통해 “금일 대중사 법계 품서에 임하시는 용상고덕 스님들께 사부대중과 더불어 찬탄하고 만심환희한다”며 “대중사님들은 일평생 올곧은 수행과 덕성으로 불덕과 지혜를 두루 갖추니 이는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으로 존경과 흠모가



불기 2564년 조계종 신년하례법회가 1월8일 진제 종정예하가 주석하고 있는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봉행됐다. 종정예하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실천을 바탕으로 한 인류행복 실현을 당부한 데 이어 12명의 스님에게 종단 최고 법계인 ‘대중사’ 법계를 품서했다.

따르니 만고의 방양”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대중사 스님들에게 “인연(人天)의 사표인 대중사의 출현은 종도들이 삼보에 대한 신심과 원력을 키우고 여법하게 수행해 일상생활에서 체현되어 세상을 맑게 밝히는 연등이 될 것”이라며 “금일 대중사의 출현은 어둠 속의 등불을 만난 것과 같고 먼 길을 떠나는 이에게 나침반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 축하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 또한 종단 모든 스님들을 대표해 대중사 스님들에게 깨달음과 지도력을 상징하는 불자(拂子)를 봉정했다. 가사를 수하고 부처님전에 3배의 예를 올린 대중사 스님들은 대중이 성불에 이를 때까지 용맹정진할 것을 발원했다. 대중사 스님을 대표해 자광스님은 “이 자리에 함께한 대중이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 없이 정진할 것을 발원

하오니 제불제조께서는 증명하여 주옵소서. 이 인연공덕으로 불법이 더 증장하고 종단은 나날이 발전하며 법의 수레마퀴를 씀 없이 굴러 온 법계가 화장세계로 꾸며지게 하옵소서”라고 발원했다.

대중사는 수행력과 지도력을 갖춘 승랍 40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 스님들에게 주어지는 종단 최고 법계로 출가수행자로서 깨달음 증득은 물론 존경받는 선

지식으로서의 지위를 뜻한다. 교구본사 추천으로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 종정예하가 품서한다. 조계종은 2004년 석주스님, 성수스님 등을 시작으로 첫 대중사 법계를 품서 해왔다. 이날 새로운 대중사 12명이 탄생함에 따라 종단은 총 60명의 대중사를 갖추게 됐다.

동화사=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박광호 대구경북지사장 daegu@ibulgyo.com

“청소년에게 불교 인식 높이는 계기”

본지·상월선원 청구 설문조사
중립학교 5800여명의 답변은...

위례 상월선원은 엄격한 청규로 동안 거결체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난방도 하지 않는 천막에서 묵언하며 하루 한 끼 공양하고 14시간 정진하며, 씻지 않고 옷 한 벌로 겨울을 나는 스님들 생활은 일반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힘든 일이다.

본지는 상월선원과 함께 2019년 12

월23일부터 1월3일까지 불교총립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월선원 7가지 청규 중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위례 천막결사 상월선원 동안거 정진과 청규를 소개하는 홍보지와 함께 설문지를 전국 20여개 불교총립학교에 배포해 총 5884명이 응답했다.

학생들은 연령을 초월해 하루 14시간 정진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청규로 꼽아, 하루 절반 이상을 스님들이 참선하고 수행하는 데 놀라움을 전했다. 두 번째 힘든 청규로 초중등학생은 스마트폰과 TV를 보지 않는 것을 선택했으며, 고등학생들은 안 씻고 생활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일부 청소년들은 7가지 청규 모

두를 체크해, 선원청규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상월선원 총도감 헤일스님은 “불교총립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이 9명 스님들이 목숨을 걸고 정진하는 상월선원에 대해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도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훗날 어려움이 있을 때 상월선원 수행을 생각하며 용기 잃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5편

여현경 기자 eonardo@ibulgyo.com

조계사, 경자년 새해
사찰순례로 심신 키운다

20일 ‘화엄성중 가피순례’ 출발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수행문화 확산과 불자들의 신심고취를 위해 삼사순례에 나선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스님)는 2020년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화엄성중 가피순례’를 실시한다. 화엄성중 가피순례는 매일 하루 3곳의 사찰을 찾아 가는 방식으로, 기존 사찰 순례와 달리 전국 사찰과 암자들이 간직하고 있는 설화나 이야기 등을 신도들과 함께 찾아가 듣고 기도하는 순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1곳 사찰에서 기도해 집중하고 2곳 사찰과 암자는 문화탐방 형식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소통의 장도 될 전망이다.

화엄성중 가피순례 대장정은 1월20일 5대 적멸보궁 가운데 한 곳이자 국내 유일 모전석탑인 수마노탑으로 유명한 정선 정암사와 단종의 원찰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서려 있는 영월 보덕사와 금동암 순례로 막이 오른다. 이어 2월에는 충주 미륵세계사와 덕주사 석조사 등을, 3월에는 구례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등을 찾아가갈 예정이다.

조계사는 화엄성중 가피순례를 통해 사찰 순례와 문화탐방, 지역사회와의 소통하는 새로운 순례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화엄성중 가피순례는 올해 총 11회에 걸쳐 사찰과 암자 33곳을 찾아 간다. 이와 함께 동참한 대중들에게 화엄성중 가피순례 홀로그램 스티커를 배부해 <기도책> 내 ‘화장철해도(華藏利海圖)’에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순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창간60주년 특별인터뷰
교육원장 진우스님 2면

제주불교 재건...함일운 동 이끈
안봉려관 스님 선양사업 활발 7면



캄보디아 ‘법문화’ 종교교 준공 8면

새 연재 ‘한국산사 불화기행’ 12면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